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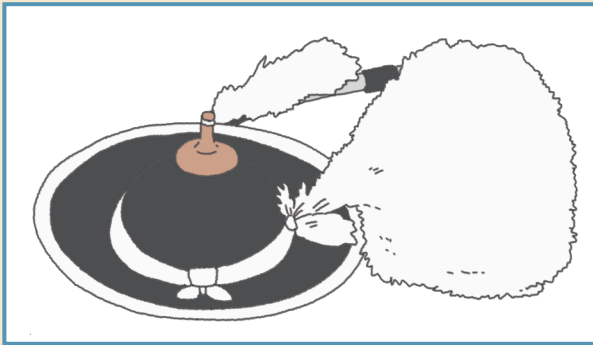
제일 작은 겨울철새 ‘상모솔새’

남산의 겨울 철새 손님 중 가장 작은 새인 ‘상모솔새’에 대해 알아 볼까요?



‘상모솔새’란

상모솔새의 상모(象毛)는 민속 풍물놀이에서 모자 꼭지에 새의 깃털을 장식한 것을 말하는데 상모솔새의 정수리에 노란 깃털을 ‘상모’에 비유하여 이름이 붙여졌어요.



상모(象毛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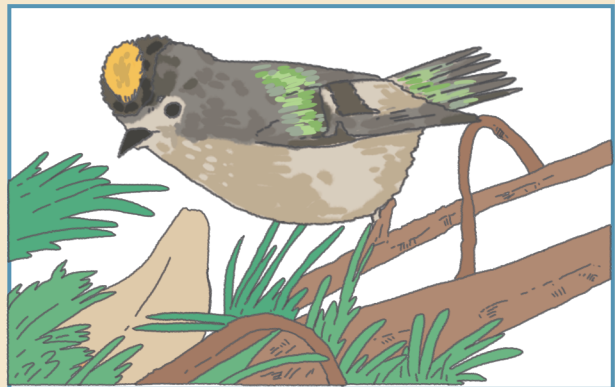
9~10cm의 작은 몸을 가진 상모솔새는 우수리, 사할린, 북한 등지에서 번식하며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피해 우리나라에 온답니다.



‘상모솔새’ 암수 구분은 머리 정수리 부분의 색으로 구분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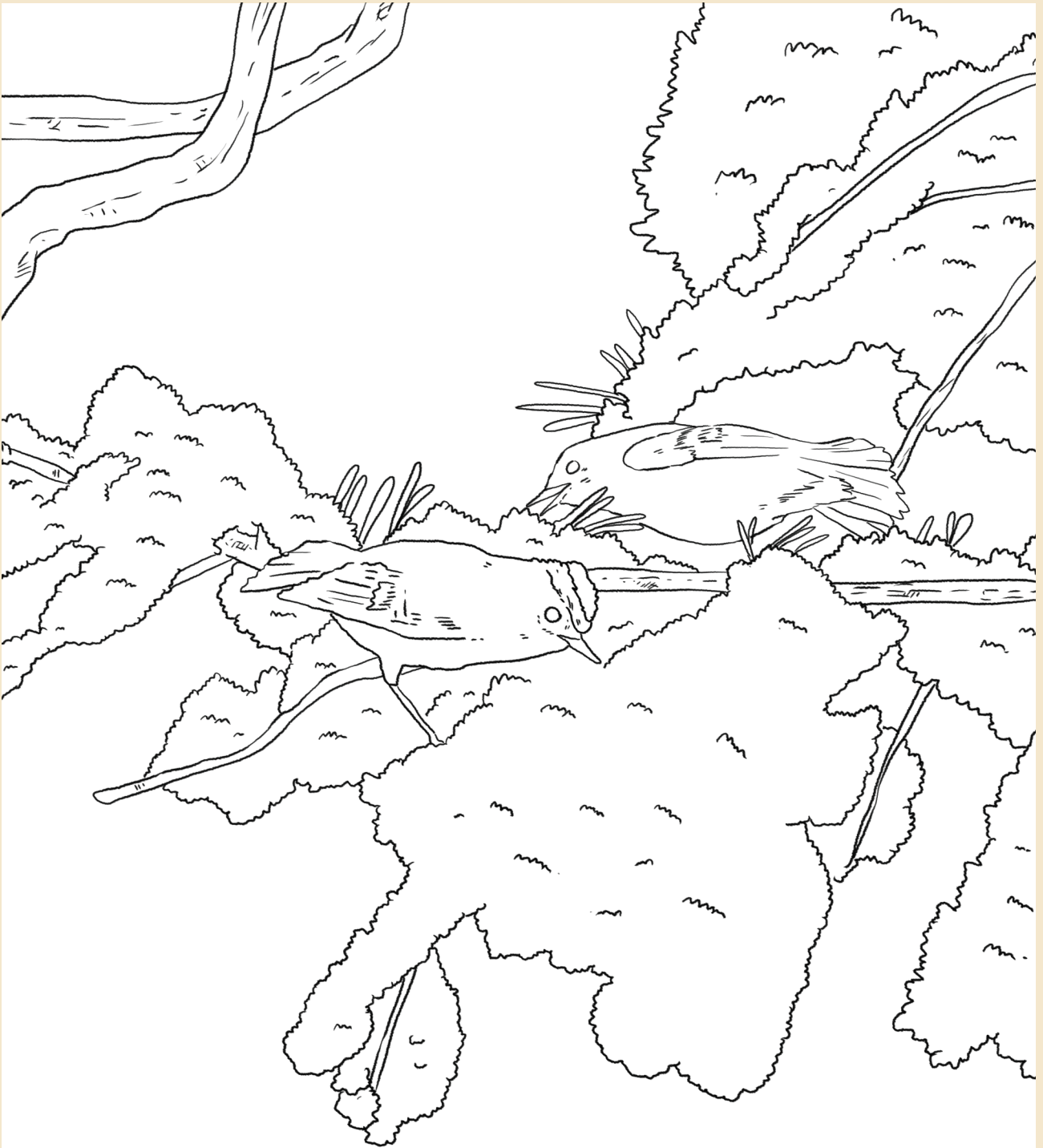


아빠 상모솔새
(정수리 부분에 노란색 깃털과 함께
오렌지색 반점이 특징)



엄마 상모솔새
(정수리 부분에 노란색 깃털만
있는 것이 특징)

겨울철새 '상모솔새'를 색칠하여 주세요~



상모솔새는 겨울철 침엽수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남산 소나무 숲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.
소나무 숲에서 '상모솔새'를 만나면 더욱 의미 있는 새해가 될 거예요.

만든이 : 공원여가과 코디네이터 김민숙
도움 : 공원여가과 김윤희